

# 보도자료



보도일시	2016. 5. 17(화)		
배포일	2016. 5. 17(화)	홍보담당	기획처 홍보팀(02-880-5054)
담당부서	기획팀	문의	변영현(02-871-1621)

## “한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명예를 빛내길”

### 서울대 박병준·홍정희 부부의 후배 사랑, 모교에 총 22억원 쾌척

- 재미사업가로 유명한 Park Family Foundation 박병준(섬유공학과 '52년 입학) 이사장과 홍정희(섬유공학과 '56년 졸업) 동문 부부가 서울대에 22억원을 쾌척했다.
- 박병준·홍정희 동문 부부는 지난 2004년부터 모교를 꾸준히 후원해오고 있으며, 2004년 10억원을 기부한데 이어 최근 서울대 사대 부설고등학교 체육관 신축기금으로 100만 달러(약 12억원)을 기부하였다. 서울대는 5월 16일(월) 동문 부부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.
- 성낙인 총장은 “한국인으로서 긍지·미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영예·서울대인으로 서의 자부심으로 우리나라의 명예를 높이신 이사장님의 기금은 학생들이 소중한 꿈을 마음껏 키워나갈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소중히 활용하겠다”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.
- 미국 이민자로 근검절약해 열심히 모은 돈을 기부해 온 박병준 동문은 “후배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도전하길 바란다”며 “모교인 서울대와

사대부고가 국내 최고를 넘어 세계무대에서 더 많은 활동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, 이번 사대부고의 체육관 신축기금으로 후배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학업에 정진하길 바란다”고 소감을 전했다.

- 또한 “쉽지 않은 이민 생활이었지만 항상 받은 축복과 혜택을 어떻게 돌려줄 수 있을까 고민했고, 후배들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보람된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다”며 “젊은 인재들의 무한한 발전을 위해 한국도 선진국과 같이 기부 문화가 성숙해져야 한다”고 독려했다.
- 서울대와 로드아일랜드디자인대·MIT·영국 리즈대 등을 나온 박 이사장은 1986년 설립한 미국 산업제품안전성시험평가연구소(MTL)를 2001년 프랑스 국제품질검사기관 뷰로 베리타에 20억 달러를 받고 매각한 후 본격적인 사회 자선 활동을 펴왔다.
- 그동안 박 이사장은 미국 MIT에 박병준-홍정희 혁신강연관 설립기금 100만 달러 출연을 시작으로 2002년 래히클리닉에 연구재단 창립기금 200만 달러, 한국의 춘천해양장학재단 설립기금 11억원, 서울대 발전기금 22억원, 카이스트 ‘박병준-홍정희 KI빌딩’ 건립기금 1,000만 달러를 기부하는 등 꾸준히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.

※ 사진설명: 성낙인 총장(오른쪽)과 박병준 동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